

브라질 유전 개발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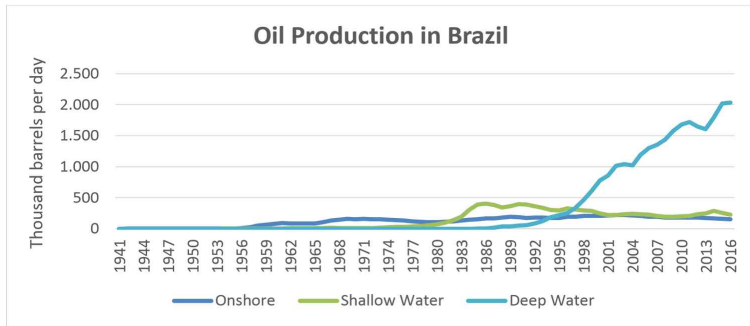
(2017. 6. 28)

상파울루사무소

1 브라질 유전 개발 산업 개황

□ 브라질은 1941년 Bahia州 Candeias市에서 육상(onshore) 유전 개발을 시작한 이래 해상으로 개발 지역을 확장하였으며, 현재 개발중인 유전은 대부분 심해(deep waters) 유전임.

브라질 유전별 원유생산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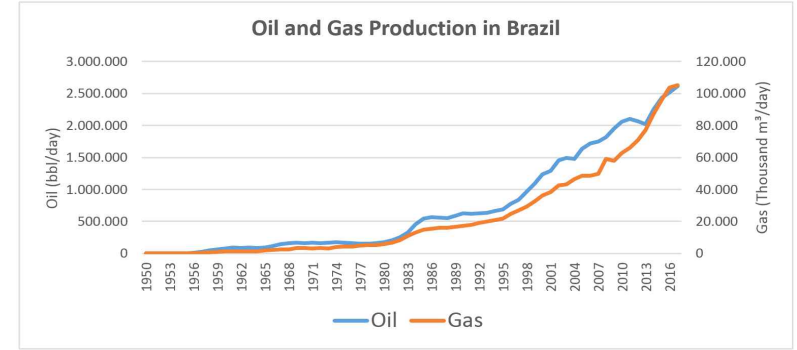


출처 : 브라질석유청

□ 1971년까지 Petrobras社가 유전 탐사·개발을 독점하였으나,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Petrobras와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전 개발시장을 다국적기업에게 개방코자 1999년부터 국제 유전개발권 경매 입찰(유전 라운드)을 진행해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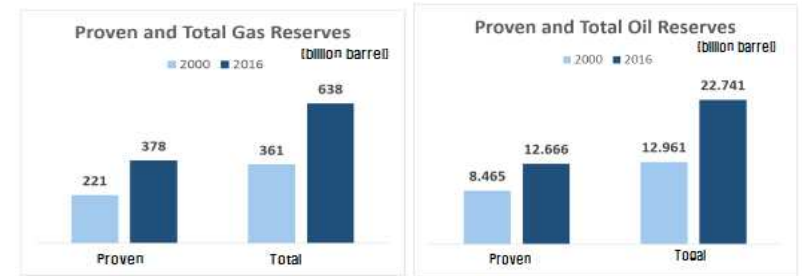
- Petrobras社 독점 당시 일일 생산량은 0.9백만 배럴 수준이었으나, 개방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현재 생산량은 일일 2.5백만 배럴에 이르고 있음.
- 원유 확인매장량(proven reserves)은 2000년 85억 배럴에서 2016년 127억 배럴로 증가(세계 15위) 했으며 가스 매장량은 2,210억m³에서 3,780억m³(세계 33위)로 증가함.

브라질 원유·가스 생산량 증가 추이



출처 : 브라질석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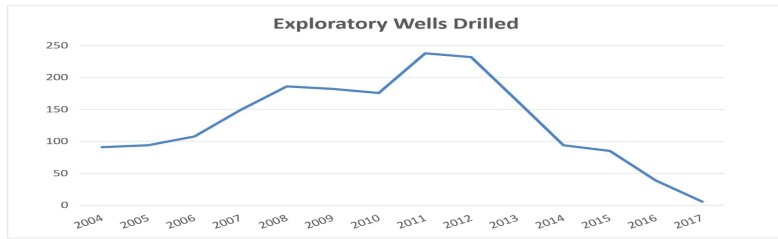
브라질 유전 시장 개방 이후 원유·가스 매장량 비교



출처 : 브라질석유청

- 유전 개발 시장 개방 이후 원유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브라질의 유전 개발 기회는 여전히 풍부한 상황임.
- 전체 퇴적분지중 개발이 허용된 부분은 5%미만이며 현재 시추중인 유전은 30,000여개*로 미국, 아르헨티나 등 타 원유 생산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 * 아르헨티나가 시추하고 있는 유전 수의 50%에 그침
- 특히 2009-2012년 기간 동안에는 유전라운드(유전 개발권 경매 입찰)가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유전 개발도 부진하였으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 유전 탐사활동도 감소 추세를 이어 왔음.

브라질 탐사 유전수 추이



출처 : 브라질석유청

- 2017. 5월말 기준 700여개의 유전에 대해 탐사(300개) 및 개발(400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현재 95개 기관(외국기업 48개)이 오일&가스 산업분야에서 영업 활동하고 있음.

2 브라질 유전 라운드(유전개발권 경매 입찰) 계획

- 브라질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CNPE)*는 유전 탐사·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근 2017-2019년 브라질 유전 라운드(유전개발권 경매 입찰) 계획 승인
- * National Energy Policy Council :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규제 기관

브라질 유전 라운드 계획

연도	유전 라운드	개발 대상 유전	입찰일
2017	제14 유전라운드(양허)	East Margin, Onshore Basin	9.27
	제2 유전라운드(PSA)	Gato Do Mato, Carcara, Sapinhua, Tartaruga Verde	10.27
	제3 유전라운드(PSA)	Peroba, Pau Brasil, Alto de Cabo Frio	10.27
2018	제15 유전라운드(양허)	Equatorial Margin and Onshore Basins, Sergipe-Alagoas, Pernambuco-Paraiba	5월중
	제4 유전라운드(PSA)	Saturno, Três Marias, Uirapuru, C-M, Uirapuru	5월중
	제5 Marginal Field 유전라운드(PSA)	미정	미정
2019	제16 유전라운드(양허)	East Margin and Onshore Basins	3분기중
	제5 유전라운드(PSA)	Aram, Bumerangue and SE Lula, South	3분기중
	제6 Marginal Field 유전 라운드	미정	미정

- Petrobras社は 지난 6.8일 개최된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2017년 제2라운드 5개 입찰 대상 지역 중 Sapinhua, 제3라운드 3개 입찰 대상 지역중 Peroba, Alto de Cabo Frio를 관심지역으로 발표함.

- Petrobras社は 심해유전입찰 규정에 따라 관심 지역에 대해 선매권 (Preemptive right)을 가지며 최소 30% 지분을 가지고 운영사로 참가하게 됨.

- 브라질 정부는 2017-2019년 유전라운드를 통해 일일 원유생산량이 2017년 255만 배럴에서 2027년 450만 배럴로 증가 되고, 100억 배럴 수준의 가채매장량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 유전 개발 정책 동향

- 브라질 정부는 성공적인 유전라운드 진행 및 유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입찰 조건 및 규정을 완화해오고 있음.
- 국영석유기업인 Petrobras社の 심해유전 의무 입찰 참여 조항(최소 30% 지분으로 참여) 폐지
- 국내 부품 조달(Local Contents) 비중 축소
 - * 기존 최대 90%에서 육상의 경우 약 50%, 해상의 경우 약 18%
- 로열티 축소(제14 유전라운드 : 10% → 5%) 등

4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유전라운드를 통해 향후 10년간 635억불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등 동 유전라운드를 통해 여러 다국적기업을 통한 외국자본 유입이 예상되며, 이는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7-2018년 예정된 유전라운드는 아국 에너지 기업들에게도 유전 개발권 입찰 참여 및 드릴쉽 등 탐사·개발 장비 판매 등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